

2018년 경찰 1차 시험 한국사 해설(3월 24일 시행)

해동한국사 : 신영식 교수

1.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동기 시대에는 미송리식 토기, 팽이형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 토기 등이 제작되었다.
- ② 청동기 시대 후기에 이르면서 한반도 내에서는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거친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로 바뀌었다.
- ③ 식량 생산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빈부 격차와 사회 분화가 나타났다.
- ④ 보리, 밀, 팥, 콩, 조, 기장 등이 재배되었으나, 아직 벼농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답 : ④

④ 청동기 시대에는 조·보리·콩 등의 밭농사가 발달하였고 일부 저습지를 중심으로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①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 미송리식 토기, 팽이형 토기, 공거리형 토기, 구멍무늬 토기, 송국리형 토기, 붉은 간 토기 등이 있다. ② 청동기 시대의 거친무늬 거울과 비파형 동검이 철기 시대로 이행되면서 잔무늬 거울과 세형 동검 등의 독자적 청동기로 형태가 변하여 갔다. ③ 청동기 시대에는 생산물의 분배와 사유화 문제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으며, 분배 과정에서 생겨난 빈부 격차는 계급의 분화를 촉진시켰다.

2. (가)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고구려 개마대산 동쪽에 있는데 개마대산은 큰 바닷가에 맞닿아 있다. …… 그 나라 풍속에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한다. 신랑 집에서 맞이하여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를 삼는다.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자의 친정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돈을 지불한 후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

(나) 남쪽으로는 진한과, 북쪽으로는 고구려·옥저와 맞닿아 있고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았다. ……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 ① (가) 신부의 집 뒤에 서옥을 짓고 훗날 자녀가 태어나 성장하면 아내와 함께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풍습이 있었다.
- ② (가)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회의를 통해 사형시키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 ③ (나) 족장들은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 ④ (나) 씨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 족외혼 풍습과 다른 읍락의 경계를 침범하면 소, 말, 노비로 보상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가)는 옥저, (나)는 농예에 대한 내용이다.

④ 동예는 씨족 사회의 전통으로서 족외혼(동족혼 금지)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소나 말·노비[生口]로 변상해야 하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

① ‘서옥제(데릴사위제)’는 고구려의 혼인 풍속이다. ② 중대한 범죄자를 ‘제가 회의’를 통해 사형에 처한 나라는 고구려이다. ③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의 독자적인 족장 세력이 저마다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린 나라는 부여이다.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국가 체제를 정비한 것은 고구려였다. 졸본성에서 (가) 으로 도읍을 옮긴 고구려는 1세기 후반 태조왕 때에 이르러 정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러한 정복 활동 과정에서 커진 군사력과 경제력을 토대로 왕권이 안정되어 왕위가 독점적으로 세습되었고, 통합된 여러 집단은 5부 체제로 발전하였다. 이후 2세기 후반 (나) 때에는 부족적인 전통을 지녀 온 5부가 행정적 성격의 5부로 개편되었다. 이후 왕위 계승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으며, 족장들이 중앙 귀족으로 편입되는 등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가 더욱 진전되었다. 백제는 기원 후 1세기 중엽에 마한을 공격하고, 3세기 중엽 (다) 때에는 위(魏) 지배하의 낙랑군과 대방군 그리고 말갈족을 북으로 밀어 내면서 영토를 넓히고, 국가 체제를 새롭게 정비했다. 즉 중앙에 6개의 좌평(佐平)을 두어 업무를 분장시키고, 16품의 관등제와 백관의 공복(公服)을 제정하여 지방 족장들을 차등 있게 중앙관료로 흡수함으로써 정비된 고대 왕국의 모습을 갖추었다. 신라가 세습왕권을 확립하고 지금의 경상북도 일대를 장악하게 된 것은 4세기 후반의 (라) 때부터이다. 이때부터 3성교대가 끝나고 김씨가 세습적인 왕권을 확립하고 군장의 칭호도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꾸었다. 부족 집단인 6촌도 이 무렵 행정적인 6부로 개편되었다.

- ① (가) 국내성, (나) 고국천왕, (다) 고이왕, (라) 지증왕
- ② (가) 평양성, (나) 고국원왕, (다) 근초고왕, (라) 내물왕
- ③ (가) 국내성, (나) 고국천왕, (다) 고이왕, (라) 내물왕
- ④ (가) 평양성, (나) 고국원왕, (다) 근초고왕, (라) 지증왕

정답 : ③

(가)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하고 평야 지대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압록강 가의 국내성으로 옮겨 5부족 연맹을 토대로 발전하였다. (나) 고국천왕 때에는 부족적 전통을 가진 5부족을 동, 서, 남, 북, 중의 행정적 5부로 바꾸었다. 그리고 왕위 계승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어 왕권을 강화하였다. (다) 백제 고이왕은 새로운 관제로서 6좌평 16관등제를 설치하고 자색·비색·청색의 관복제를 도입하였다. (라) 내물왕 시기부터 김씨가 왕위 세습권을 독점하였고 왕권의 강화를 표시하기 위해 왕호를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꾸었다.

4. 신라 말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8세기 후반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 150여 년 동안 20여 명의 왕이 교체되는 등 진골 귀족의 왕위 쟁탈전이 심화되었다.
- ② 당에서 돌아온 6두품 계열의 유학생들이 제시한 개혁안이 정치에 반영되었다.
- ③ 농민에 대한 수탈이 심해지면서 원종과 애노의 난을 시작으로 농민 봉기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 ④ 견훤은 완산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고, 궁예는 송악에 도읍을 정하고 후고구려를 세웠다.

정답 : ②

- ② 신라 하대 당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대표적인 학자로는 최치원이 있다. 최치원은 진성여왕에게 과거제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무 10조를 올렸으나 끝내 정치에 반영되지 못했다.
- ① 해공왕 대부터 진골 귀족의 권력다툼이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해공왕이 피살되고 무열왕계의 왕위 세습이 끊어졌다. 이후 신라에서는 왕위다툼이 심해져서 150여 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바뀌는 큰 혼란이 일어나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다. ③ 신라 하대에는 진골 귀족의 독음이 확대되어 농민에 대한 귀족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자영농이 몰락하였다. 그리고 국가재정이 파탄되고 농민에 대한 수탈이 강화되면서 원종과 애노의 난(889), 적고적의 난(896) 등의 민란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다. ④ 견훤은 900년에 완산주(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고, 궁예는 양길골을 몰아낸 다음 송악에 도읍을 정하고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901).

海東韓國史

5. 다음 개혁안이 등장한 왕의 재위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태조께서 통일하신 후에 외관을 두고자 하셨으나, 대개 초창기였으므로 일이 번잡하여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에 제가 보건대 향리 토호들이 늘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침해하고 학대하므로 백성들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하니, 청하건대 외관을 두시옵소서.

- ① 적극적인 북진정책의 결과로 북쪽 국경선이 대동강을 넘어 청천강 선으로, 동북으로는 원산만에서 영흥(永興)까지 확대되었다.
- ② 자색(紫色), 단색(丹色), 비색(緋色), 녹색(綠色)으로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 ③ 중앙문관에게는 문산계를, 지방호족인 향리와 노병 등에게는 무산계를 부여하는 등 관료와 호족들의 서열화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다.
- ④ 교종과 선종의 불교계를 정리하기 위해 교종의 여러 종파를 화엄종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선종의 여러 종파를 법안종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정답 : ③

제시된 사료는 고려 성종 대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의 일부이다.

- ③ 성종 대 관리들의 조직에 대해서 중국식의 문산계를 도입하고, 얼마 뒤 무산계를 다시 들여와 향리(鄉吏) 등에 대한 위계로 사용하였다.
- ① 태조 왕건은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북진 정책의 기지로 삼았으며, 그 결과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영토를 확보하였다. ② 광종은 지배층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후주의 사신이 온 것을 계기로 중국식 관복제를 바탕으로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여 4색 공복제(자색, 단색, 비색, 녹색)를 완성하였다. ④ 광종은 교종을 균여의 화엄종 중심으로 재편하였고, 신종은 법안종을 중심으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6. 고려의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국을 크게 5도와 양계, 경기로 나누고, 그 안에 3경, 4도호부, 8목을 비롯하여 군·현·진을 설치하였다.
- ② 경은 중앙과 지방의 군현을 잇는 중간 역할을 담당한 기구의 하나로, 서경(평양), 동경(경주), 남경(양주, 지금의 서울)이 설치되었다.
- ③ 지방 출신 고급 관리를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향리를 견제하도록 한 한편, 상수리제도를 실시하여 향리 자제를 개경에 강제로 이주시켜 지방 일의 자문에 응하게 했다.
- ④ 북방의 국경 지대에는 동계·북계의 양계를 설치하여 병마사를 파견하고, 국방상의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특수 지역이었다.

정답 : ③

③ 고려는 지방 출신 고급 관리를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자신과 인연이 있는 지역(대부분 자기 출신지)에 대한 영향력과 함께 부호장 이하의 향리 임명권을 부여했으며, 자기 출신지의 치안과 행정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수리 제도는 통일 신라의 제도이다. 고려 시대에는 통일 신라의 상수리 제도를 계승하여 기인 제도가 실시되었다.

① 고려의 지방 조직은 전국을 5도와 양계, 경기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3경, 4도호부, 8목을 비롯하여 군·현·진 등을 설치하였다. ② 고려시대에는 개경이 수도의 역할을 하면서, 과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를 수도와 같이 대우해주고 관리하기 위해 준수도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고려 초기의 3경은 개경, 서경(평양), 동경(경주)이고, 문종 대 남경이 설치되면서 3경은 개경, 서경, 남경(한양)으로 바뀌었다. ④ 고려 시대에는 북방의 외침을 막기 위해 국경 지대에 군사적 특수 행정 구역인 양계(서북계, 동북계)를 설치하였고 병마사가 파견되었다. 양계 지역은 국방상 요충지로 진을 설치하여 각각의 진에는 방어사(방어주진사)와 진장 등이 파견되었다.

7. 고려 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은?

- ㉠ 몽골에 저항하던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 ㉡ 강화도와 진주에 도감을 설치하고 새로이 대장경을 판각하여 완성하였다.
- ㉢ 『상정고금예문』이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다.
- ㉣ 일연이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와 전래기록을 수록한 역사서를 저술하였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정답 : ①

㉔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의하면 강화도 피난 시절인 1234년 최우가 보관하던 『상정고금예문』 50권을 28부 인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㉕ 1236년 국왕을 비롯하여 문무관료가 부처의 힘을 빌어 몽골을 물리칠 목적으로 대장경을 다시 조판하기 위해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1251년 완성하였다. ㉖ 고려 정부가 몽골과의 강화 체결 이후 개경으로 환도한 것은 1270년이다. ㉗ 일연의 『삼국유사』는 원 간섭기 초기인 충렬왕 때(1281) 편찬되었다.

8. 고려 시대의 예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포 양식은 공포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짜여져 있는 양식으로 황해도 사리원의 성불사 응진전은 대표적인 고려 시대 다포 양식의 건물이다.
- ② 신라 불상의 양식을 계승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균형미가 뛰어난 조각이다.
- ③ 서예는 고려 전기 구양순체가 주류를 이루었고, 후기에는 송설체가 유행했다.
- ④ 고려 후기 왕실과 권문세족의 구복적 요구에 따라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불도와 지장보살도 같은 불화가 많이 그려졌다.

정답 : ②

② 고려 시대 신라 양식을 계승한 대표적인 불상은 부석사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이다.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고려 초기의 지역적 특색과 웅장한 기운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① 다포식 건물은 공포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짜여져 있는 건물로, 웅장한 지붕이나 건물을 화려하게 꾸밀 때에 쓰였다. 황해도 사리원의 성불사 응진전은 고려 시대 다포식 건물로 유명하다. ③ 고려 전기에는 구양순체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왕희지체의 대가인 탄연의 글씨가 특히 뛰어났다. 후기에는 송설체가 유행했는데, 이암이 뛰어났다. ④ 고려 후기에는 왕실과 권문세족의 구복적 요구에 따라 불화가 많이 그려졌다. 그 내용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아미타불도와 지장보살도 및 관음보살도가 많았다. 일본에 전해 오고 있는 혜허가 그린 관음보살도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9. 고려의 대외 항쟁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2세기 초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개의 성을 쌓았다.
- ② 몽골의 침입으로 황룡사 9층탑, 부인사 대장경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 ③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자, 삼별초는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대몽 항쟁을 계속하였다.

④ 몽골의 침입으로 공민왕이 복수(안동)까지 피난하는 등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다.

정답 : ④

④ 몽골의 침입이 아닌 홍건적의 2차 침입으로 인해 1361년 개경이 함락되어 왕이 복주(안동)까지 피난하였으나, 정세운·안우·이방실 등이 홍건적을 격퇴하였다.

① 윤관은 숙종에게 건의하여 기병 중심의 별무반을 편성하였으며, 예종 대 부원수 오연총과 함께 17만의 대군을 이끌고 함흥평야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 9개의 성을 쌓아 군사를 주둔시켜 동북 9성을 축조(1107)하였다. ② 몽골의 침입으로 황룡사 9층탑과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초조대장경 등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다. ③ 최씨 정권이 1258년에 무너지고 이후 몽골과의 강화가 성립되어 개경으로 환도(1270)하게 되었으나 삼별초는 이를 거부하고 승화후 온(溫)을 내세워 진도에서 항쟁하였다. 하지만 삼별초를 이끌던 배중손과 승화후 온이 여·몽 연합군에 의해 진도에서 전사하고, 이후 김통정이 삼별초를 이끌고 제주도에서 항전하였으나 결국 진압되었다(1270~1273).

10. 다음 시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좋은 말 살지게 먹여 시냇물에 씻겨 타고
서릿발 같은 칼 잘 갈아 어깨에 둘러매고
대장부의 위국충절을 세워 볼까 하노라

- 「호기가(豪氣歌)」 -

- ① 침입하는 왜구를 홍산에서 격퇴하였다.
- ② 화통도감에서 각종 화기를 제조하여 왜구 격퇴에 사용하였다.
- ③ 황산에서 적장 아지발도를 사살하는 등 왜구를 섬멸하였다.
- ④ 관음포 앞바다에서 왜선 120여 척을 격침시켰다.

정답 : ①

제시된 시는 고려 말 최영이 지은 ‘호기가(豪氣歌)’이다.

- ① 고려 말 왜구의 침탈이 잦아지자 우왕 대 최영이 충남 홍산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 ②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하고 다양한 화기(火器)와 화약을 제조하여 왜구 격퇴에 사용한 사람은 최무선이다. ③ 황산에서 아지발도(아지바투)를 사살한 인물은 이성계이다. ④ 1383년 (우왕 9) 장군 정지가 120척의 선단을 이끌고 온 왜구를 관음포에서 격퇴하였다.

11. 조선 시대의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 성종 때 시행된 관수관급제는 수조권자의 과다한 수취를 막기 위해 국가가 수조를 대행하는 제도이다.
- ② 조선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자영농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 ③ 과전의 세습 등으로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 ④ 과전법 체제에서는 관료가 사망한 이후 수신전과 홀양전이 죽은 관료의 가족에게 지급되기도 하였다.

11. 정답 : ②

② 직전법의 폐지로 양반들의 토지 소유 욕구가 더욱 심화되면서 대농장이 확산되었고 지주 전호제가 일반화되었다. 즉, 직역의 대가로 더 이상 수조권을 받지 못하게 된 양반 관료들이 토지 집적과 운영에 힘을 기울이게 되면서 지주전호제가 점차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병작반수제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리하여 대부분의 농민은 토지를 잃고 소작 농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① 성종 대 관수관급제가 실시되면서 관청에서 그해의 생산량을 조사하여 직접 거두고 관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③ 과전법 시행 과정에서 신진 관료에게 지급할 수조지가 부족해지자 세조 대 전직 관리에게 지급하였던 토지 및 수신전, 홀양전을 모두 몰수하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④ 조선시대 과전법에서는 죽은 관료의 가족들에게도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받았던 토지 중 일부를 수신전과 홀양전 등으로 다시 지급하여 세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2. 조선 시대의 과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과(대과)의 복시에서는 33명을 뽑았고, 이들은 다시 전시를 보았다.
- ② 문과(대과)의 최종 합격자는 지역과 상관없이 성적에 따라 갑·을·병으로 나뉘었다.
- ③ 무과는 문과처럼 대과와 소과의 구별은 없었으나 초시·복시·전시를 치르는 것은 문과와 마찬가지로였다.
- ④ 소과 복시의 합격자 수는 각 도의 인구 비율로 배분되었다.

12. 정답 : ④

④ 소과의 복시가 아니라 초시의 합격자 수가 각 도의 인구 비율로 배분되었다.

①, ② 문과는 크게 3단계(초시·복시·전시)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우선 초시에서 각 도의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240명을 선발하고, 복시에서 최종합격자 33명을 선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시는 국왕 앞에서 시행된 시험으로 시무책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시취(試取)하였으며, 여기에서 갑과(甲科)·을과(乙科)·병과(丙科) 순위가 결정되었다. ③ 문과와 같이 대과와 소과의 구별이 없었던 점을 제외하고 무과의 절차는 문과와 거의 동일하였다. 초시에서 190명을 선발하고 최종 선발 인원은 28명이었으며, 장원(壯元) 없이 갑과 3명, 을과 5명, 병과 20명만 결정하여 시취(試取)하였다.

13. 다음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설명이다. 이를 시간 순으로 나열한 것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립 장군이 충주의 탄금대에서 왜군과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군민들이 첨사 정발의 지휘 아래 왜군과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조선 수군이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다.㉣ 왜군이 평양을 점령하였다. |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3. 정답 : ②

㉠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1592. 4. 13), 부산 첨사정발과 동래부사 송상현이 이끄는 육군이 분전하였으나 부산진과 동래성에서 패하였다. ㉡ 부산진과 동래성의 패배 소식이 조정에 전해지자, 조정은 신립을 도순변사(都巡邊使), 이일을 순변사(巡邊使)에 임명하여 대비하였다. 하지만 이일이 상주에서 왜군 장수 가토 기요마사에게 패배하여 충주로 물러서고, 이일의 뒤를 이어 신립은 충주 탄금대에서 분패(1592. 4. 17)하였다. ㉢ 이순신의 수군은 1592년 5월 7일 옥포해전에서 왜군을 처음 격파하였다. ㉣ 왜군은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하였고, 선조는 세자(광해군)와 함께 의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 왜군이 북상을 계속하여 평양(1592. 6)과 함경도 지방에까지 침입하자 이에 선조와 조정 대신들은 정치적으로 타협하여 세자 광해군의 조정인 분조(分朝)를 설치하게 되었다.

14. 조선 후기 노론 내부에 주기설과 주리설의 분파가 생겨 이른바 ‘호락시비(湖洛是非)’로 불리는 큰 논쟁이 일어났다. 이 호락(湖洛) 논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조 때에 한원진과 윤봉구로 대표되는 충청도 노론은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은 다르다고 보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내세웠다.
- ② 호론의 주장에는 청나라를 중화로 보려는 대의명분론이 깔려 있었다.
- ③ 이간, 김창협 등으로 대표되는 서울 중심의 노론은 인성과 물성이 같다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하였다.
- ④ 낙론의 주장은 북학파의 과학기술 존중과 이용후생사상으로 이어졌다.

14. 정답 : ②

② 호론의 주장은 화이론을 계승한 것으로, 이들의 사상은 중화와 오랑캐를 구별하여 보려는 배타적 입장을 띠고 있었으며, 이후 위정척사 사상으로 연결되었다.

① 호락 논쟁은 송시열의 직계 제자들이 벌인 사상 논쟁인데 한원진과 윤봉구로 대표되는 충청도 노론은 인성과 물성은 다르며, 미발심체에 전악이 존재하며, 성인과 범인의 심체가 다르다는 ‘인물성이론’을 내세웠다. ③ 권상하의 제자인 이간과 김창협이 중심이 된 낙론은 인성과 물성이 같다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하였다. ④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하였던 ‘낙론(洛論)’의 사상은 북학사상의 배경이 되었으며, 19세기 최한기에 의해 서양의 경험 철학과 연결되어 화이론을 극복하는 개화사상의 철학적 기반이 되었다.

15. 다음 인조반정 이후 17세기에 발생한 사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 삼학사(三學士)가 심양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였다.
 ㉡ 이괄이 평안북도에서 반란을 일으켜 서울까지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 후금의 태종은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정묘호란’을 일으켰다.
 ㉣ 후금이 국호를 청(淸)이라 고치고 조선에 대하여 군신(君臣)의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해 왔다.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5. 정답 : ②

㉡ 인조반정 후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고(1624), 진압되는 과정에서 그 잔당이 후금과 내통하여 후금의 조선 침입을 종용하였다. ㉢ 1627년 후금은 광해군에 대한 보복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쳐들어왔다(정묘호란). 이 결과 조선은 후금과 형제 관계 등을 조건으로 하는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다. ㉣ 후금은 세력이 더욱 커져서 인조 10년(1632) 형제 관계를 군신 관계로 변경하자고 요구해 왔고, 세폐도 더욱 늘렸다. 국호를 청(淸)이라 고친 후에는(1636) 황제를 칭하면서 조선의 왕자들과 주전론자(主戰論者)들을 볼모로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 병자호란의 결과 조선은 명과의 관계를 끊고 청에게 복속되었으며,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빈궁(嬪宮, 세자빈)이 청에 인질로 잡혀갔다. 그리고 청과의 형전을 주장하였던 홍익한, 윤집, 오달제 등 3학사는 중국 심양에서 침형을 당했으며, 김상헌 역시 후에 잡혀 가 옥중 생활을 하였다.

16. 다음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천리(千里)를 끌어다 지척(咫尺)으로 삼겠으며, 태산(泰山)을 깎아 내려 평지(平地)를 만들고, 또한 남대문(南大門)을 3층으로 높이려 한다.”

- 『매천야록』 -

- ① 만동묘를 철폐하고 폐단이 큰 서원을 철폐하도록 하였다.
 ②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켜 각각 정치와 군사의 최고 기관으로 삼았다.
 ③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을 재건하고, 광화문 앞의 육조 거리 등 한양의 도시 구조를 복원하였다.
 ④ 정치 제도를 개혁하기 위하여 비변사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16. 정답 : ④

제시된 사료는 홍선대원군이 노론을 누르고 남인을 기용하여 정치를 안정시키려 했음을 보여주는 『매천야록(梅泉野錄)』의 일부 내용이다.

- ④ 홍선 대원군 집권기에는 의정부와 6조 및 삼군부의 기능이 부활하였고, 비변사가 혁파되었다.
 ① 홍선대원군은 만동묘를 비롯하여 봉당 근거지로서 백성을 수탈해 온 서원을 47개소만

남긴 채 대북 정리하였다. ② 흥선 대원군은 세도 가문의 권력 승추 기구였던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하여 군국사무(軍國事務)만을 담당하게 하였고, 국정에 대한 총괄적 권한은 의정부에 부여하였다(1864). 이후 삼군부(三軍府)를 복설함으로써 군권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이로써 사실상 비변사가 혁파되었다(1865).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이 다시 강화되면서 관료체제의 기틀이 확립되었고, 정권(政權)과 군권(軍權)이 분리되었으며 왕권이 강화되었다. ③ 흥선 대원군은 왕실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앞으로는 동서로 육조를 비롯한 여러 관청이 신하가 도열해 있는 것처럼 늘어서 있어 궁궐의 위엄을 더하게 되었다.

17. 다음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 환궁하여 1897년 10월 12일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는 '대한(大韓)'으로 바꾸었다. 또한 1899년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발표하여 만국공법(국제법)상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 ①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국국제'는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권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 ②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은 1897년 2월 경복궁으로 환궁하였다.
- ③ '대한국국제'는 황제에게 육·해군의 통수권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 ④ 대한제국은 입헌군주제와 의회 설립을 통한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였다.

17. 정답 : ③

③ 대한민국 국제를 통해 국가의 모든 권한(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외교권)이 황제에게 집중되었으며, 군주의 전제권은 더욱 강화되었다.
 ①, ④ '대한국국제'는 전제 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헌법이다. 따라서 입헌군주제와 의회설립, 민권 신장을 강조하였던 독립협회의 정치 개혁 운동은 자칫 왕조 질서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기에 탄압받았다. ② 아관 파천 후 약 1년만에 고종은 자주독립의 근대 국가를 세우려는 국민적 열망과 러시아의 우월적 지위를 견제하려는 국제 여론에 힘입어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으로 환궁하였다.

18. 다음은 어느 애국계몽단체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 단체보다 먼저 결성되어 활동했던 단체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릇 우리나라의 독립은 자강에 있음이라. 오늘날 우리 한국은 3천리 강토와 2천만 동포가 있으니 힘써 자강하여 단체가 합하면 앞으로 부강한 전도를 바랄 수 있고 국권을 능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강의 방법으로는 교육을 진자하고 산업을 일으켜 흥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무릇 교육이 일지 못하면 민지(民智)가 열리지 못하고 산업이 늘지 못하면 국부가 부강할 수 없다. 그런즉 민지를 개발하고 국력을 기르는 길은 무엇보다도 교육과 산업을 발달시키는 데 있지 않겠는가?

- ㉠ 헌정연구회 ㉡ 대한협회 ㉢ 보안회 ㉣ 대한자강회

① ㉠, ㉡

② ㉢, ㉣

③ ㉠, ㉣

④ ㉢, ㉣

18.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구한말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했던 대한 자강회(1906. 4)의 취지문이다. 대한 자강회는 윤효정, 장지연 등이 헌정 연구회를 계승·개편하여 조직한 단체로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한 실력 양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국민 교육 강화와 국력 배양 운동을 전개하였다.

㉠ 헌정연구회(1905. 5)는 이준(李儔), 양한묵(梁漢默), 윤효정(尹孝定) 등이 중심이 되어 입헌 군주제를 수립하여 민권의식과 독립 정신을 일깨우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정치 단체였다. ㉣ 보안회(1904. 7)는 원세성(元世性), 송수만(宋秀萬), 심상진(沈相震)이 중심이 되어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기 위한 반일 규탄 시위를 전개하여 이에 성공하였다. 이후 이상설을 회장으로 하는 협동회(協同會)로 발전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되고 말았다.

㉢ 대한 협회(1907. 11)는 남궁억(南宮憶), 오세창(吳世昌), 윤효정(尹孝定), 장지연(張志淵) 등을 중심으로 대한 자강회를 계승하여 조직되었다. ㉡ 제시된 자료는 대한자강회의 취지문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19. 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본은 국권침탈 이후 본격적으로 토지침탈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② 중추원은 총독부 자문기구로서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수시로 개최되어 식민 행정에 간여하였다.

③ 우리 민족 기업을 탄압하고 조선인의 회사 설립을 통제하기 위하여 ‘회사령’을 공포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④ 일본은 광산·어장·산림 등 자원에 대해서도 수탈을 강화하였다.

19. 정답 : ②

② 일제는 강제 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중추원관제’를 공포하며 기존의 중추원을 총독 자문 기구로서 한국인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킨다는 명분으로 설치하였다. 그러나 중추원은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단 한 번의 정식 소집도 없었다.

① 일제는 총독부 산하에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고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여 1912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③ 회사령(1910)으로 인해 회사 설립은 총독부에 의해 허가제로 실시되었다. 이는 한국인의 기업 활동과 자본 축적을 억제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일제의 의도에 따라 재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민족 기업의 신장이 억제되었다. ④ 일제의 목표는 경제 구조를 일제의 상품과 자본을 수출하고, 한국의 식량과 원료를 수탈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삼림령(1911), 어업령(1911), 은행령(1912), 지세령(1914), 광업령(1915), 임야조사령(1918) 등을 공포하였다.

20. 다음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 한국문제를 언급하여 ‘적당한 시기(in due course)’에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 ㉡ ‘조선 건국 동맹’이 조직되었다.
- ㉢ ‘한국문제에 관한 4개항의 결의서’를 결정하였다.
- ㉣ 3국 정상들은 독일에 모여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였다.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20. 정답 : ②

㉠ 카이로 회담(1943. 11)에서 미·영·중의 수뇌들은 적당한 절차를 거쳐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처음으로 결의하였다. ㉡ 조선 건국 동맹(1944. 8)은 여운형을 중심으로 일제 패망 전에 국내에서 조직되었으며, 좌익과 우익이 모두 함께 참여한 비밀결사였다. ㉢ 포츠담 회담(1945. 7)에서는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 카이로선언의 제 조항은 이행되어야 함을 명시하였고 한국 독립을 재확인 하였다. ㉣ 1945년 12월 미국, 소련, 영국의 외상들이 3상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 문제에 관한 4개 항의 결의서’(신탁 통치안)를 결정하였다.

海東韓國史